

9월 21일(월) / 미 5-7

- **내용요약:** 말일에 도래할 평화롭고 행복한 메시아 왕국의 비전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언약이 소개되었던 4장에 이어 5장에서는 그 같은 아름다운 비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과 거룩한 사역,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전해질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것들에 대한 정결 작업등이 소개된다. 6장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 밝혀진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로 인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심판과 형벌 등의 내용이 소개된다. 7장에는 선과 진리를 상실하고 전면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된 실상을 애도해하는 선지자 미가의 애가, 오직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의 권능에 찬 역사를 소개하는 미가의 확신에 찬 메시지,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자애로우신 응답, 인애와 긍휼히 충만하신 하나님을 향한 벽찬 찬양(18-20절)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 **질문:** 5장은 누구의 탄생을 기록하는가?
 - **생각하기:**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자 메시아의 도래는 크나큰 소망이요 위로가 아닐 수 없다.

9월 24일(목) / 습 1-3

- **내용요약:** 남유다 왕국에서 참으로 사악했던 통치자 브닷세(B.C. 697-642)와 아몬(B.C. 642-640) 시대가 끝이 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 요시야(B.C. 640-609)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요시야 왕의 개혁작업이 수년간 계속되었으나 앞선 수 십 년 동안의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유다 땅은 좀처럼 경건에 이르지 못했다. 1장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유다백성의 끈질기고 해묵은 죄악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의지를 선포한다(1-3절). 그 심판의 이유(4-13절)와 심판의 양상(14-18절)을 언급함으로써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것을 전하고 있다. 2장에는 간절한 어조로 하나님께 참회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한 회개에의 권유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 즉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앗수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3장에서는 당시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하신다.
 - **질문:** 스바냐서의 주제는?
 - **생각하기:** 유다사회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가 팽배한 사회였다. 바알, 일월성신, 말감 등등의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 이유요 심판을 자초한 원인이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을 더 섬기고 추구하는 쾌락, 권세나 명예나 재물을 좇아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9월 27일(일) / 습 5-8

- **내용요약:** 성전제건을 둘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주었던 순금등대환상과 두 감람나무 환상(4장)에 이어 5장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강조한 두 환상이 제시되고 있다. 5장에는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두 대표적인 죄악(도적질, 거짓맹 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지를 나타내주고(1-4절), 일곱 번째 환상 곧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을 통해 죄악이 결단코 숨기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말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5-11절). 6장에는 스가라 선지자의 마지막 환

9월 22일(화) / 나 1-3

- **내용 요약:** 나훔서도 요나서처럼 앗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 요나서의 주제가 앗수르 수도 니느웨에 대한 회개 촉구라면,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선고를 핵심주제다. 1장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무지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며, 다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는 내용이 선포된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유다를 괴롭히는 니느웨가 멸망함으로써 유다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본문을 맺는다(15절).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멸망하게 될 것인지 예언한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공략해 올 바벨론과 매대 연합군의 위용과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니느웨 군대의 상황, 나느웨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밝히고, 니느웨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멸망이 필연적 일 것이며 멸망의 형국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준다. 3장에서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선포한다. 니느웨의 멸망이유, 애굽의 판례, 니느웨의 처참한 현실을 기록한다.
 - **질문:** 나훔서의 주제는?
 - **생각하기:** 앗수르는 잔학을 행했으나 결국 자신들도 비참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기 마련이다.

9월 25일(금) / 학 1-2

- **내용 요약:** 학개서 1장은 바벨론 귀환 이후에 뜨거운 신앙으로 착수된(B.C. 536) 성전제건의 사역이 착수2년 만에 외부의 방해로 14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황에서(B.C. 534-520),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다시금 성전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1-11절). 이에 백성들이 적극 호응하여 다시금 성전건축의 서역이 뜨겁게 시작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다(12-15절). 당시 성전건축사역은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삶' 을 살겠다는 신앙고백의 행위였다. 2장은 제1성전(솔로몬 성전)에는 외적 화려함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재건되는 제2성전(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날 것을 강조함으로써 성전제건을 독려하고 있다(1-9절). 선지자 학개와 제사장의 대화를 통해 성전제건을 게을리했던 백성의 죄악과 그것으로 인한 각종 시련들을 회상시키고(10-19절) 스룹바벨을 향한 격려와 하나님의 소망찬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20-23절)
 - **질문:** 성전건축은 무엇을 고백하는 행위였나? (1장)
 - **생각하기:** 교회역사를 보면 외부의 적이 기승할 때 교회는 더욱 단결하여 복음사역에 매진했다.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 외부의 적은 물론 내부의 숨은 적들(거짓교사들)을 경계하고 척결해야한다(히 12:15).

상으로 네 병거의 환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여진 면류관에 대한 스가라의 상징적 행동을 소개하고 있다. 6장에는 네 병거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며(1-8절), 스가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대표들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대제사장에게 씌우고 다시 성전에 안치하도록 하는 장면을 소개한다(9-15절). 7장에는 벨엘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된 지금 금식이 유효한가? (렘52:12-13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스가라

9월 23일(수) / 합 1-3

- **내용요약:** 하박국서는 유다의 요시야 왕(B.C. 640-609) 말기에 서 여호야김(B.C. 608-597) 초기에 유다의 죄악을 바라며 악인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세상의 왜곡된 질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신앙의 바른 도리를 찾아간 신앙의 변증서이다.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박국의 절문(2-4절)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죄악으로 치달는 유다백성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공의(公儀)의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징계하시지 않는가 탄원(歎願)한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시는 정한 때에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뤄진다는 응답(1-3절)과 갈대아는 교만과 죄악으로 멸망할 것인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 갈대아인들의 패역 상 다섯 가지, 탐욕(6-8절), 불의의 이를 취함(9-11절), 포악과 헛된 수고(12-14절), 술 취함과 잔악함, 가증스런 우상숭배(18-20절) 등이 지적된다. 3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 신앙고백을 주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기록한다.
 - **질문:** 하박국서의 주제는?
 - **생각하기:**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행하는 바가 죄악과 부패로 가득할 수 밖에 없다.

9월 26일(토) / 습 1-4

- **내용요약:**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들과 함께 포로기 이후의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스가라 선지자는 바사 왕 다리오 1세(B.C. 522-485) 통치 초기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였다. 스가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1-8장까지는 여덟 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고, 9-14장은 이스라엘이 맞게 될 종말론적 사건과 메시아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성전제건 작업을 게을리한 백성을 향해 조상들의 죄악성을 회상시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장은 세 번째 환상으로 청량 줄에 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패망과 예루살렘성의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정착을 확증해주고 있다. 3장에는 네 번째 환상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백성의 고도 귀환을 인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소개되고 있다. 4장에는 성전제건 책임자인 스룹바벨로 하여금 좌절하지 말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섯 번째 환상(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
 - **질문:** 스가라는 몇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 **생각하기:** 교회가 빛을 잃을 때 세상은 죄악의 깊은 밤으로 더욱 빠져들고 말 것이다.

선지자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집착하는 것을 꾸짖고,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생활에 적용해나가는 것임을 가르쳤다(4-14절). 8장에는 일곱가지의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약속(1-17절)가 세 가지의 유다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18-23절)가 소개된다.

- **질문:** 스가라 선지자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대해 어떻게 했다? (7장)
- **생각하기:** 정녕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린 생명력없는 금식은 절대 무의미할 뿐이다.